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그림의 토론 주제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토론 주제: 윤리학, 그 주요 탐구 과제는 무엇인가?

저는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의 본질은 어떤 원리가 도덕적 실천을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실천적 문제에 적용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① 갑: 다양한 문화권을 탐방하여 각국의 실천적 관습을 조사해야 한다.
- ② 갑: ‘옳다’, ‘유덕하다’ 같은 도덕적 술어의 의미를 검증해야 한다.
- ③ 을: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야 한다.
- ④ 을: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 ⑤ 갑, 을: 의무, 권리, 덕성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해야 한다.

2. (가), (나)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덕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나이 칠십에 아이처럼 장난하며 색동옷을 입고, 물을 떠 당(堂)에 오르다가 일부러 넘어져 아이 울음소리를 내었으며, 부모 곁에서 새끼 새랑 놀며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였다.  
(나) 과실(過失)이 있으시면 기(氣)를 내리고 낮빛을 온화하게 하고 음성을 가다듬어 간(諫)한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공경심을 일으키고, 기뻐하시면 다시 간한다.

- ① 동기간(同氣間)에 서로 이롭게 하며 허물을 바로잡는 것이다.
- ② 양지(養志)의 마음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실천하는 것이다.
- ③ 친애와 경쟁을 바탕으로 권면하여 믿음[信]을 실천하는 것이다.
- ④ 수평적 관계에서 구휼(救恤)의 의무를 부과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 ⑤ 음양(陰陽)의 이치에 따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정에는 각기 대응하는 사랑이 존재한다. 이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어떤 좋음[善]이 생기는 한 사랑하는 것이다. 즐거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완전한 우정은 덕에 있어 닮은 선한 사람들의 우정으로 이 경우에만 서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 자체로서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① 유덕한 성품을 갖춘 사람들만이 완전한 우정을 맺을 수 있다.
- ② 이익과 쾌락에 기초한 우정은 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 ③ 이익과 쾌락만 추구하는 이들은 어떠한 우정도 맺을 수 없다.
- ④ 유덕하지 못한 이들의 우정에서는 어떠한 선도 생겨나지 않는다.
- ⑤ 모든 우정은 행위의 좋음보다 행위자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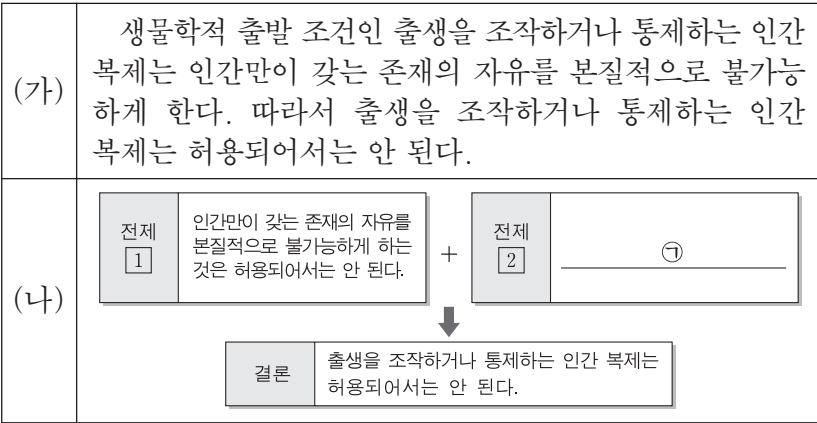
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몇 해 전 우리나라 법원은 환자가 원한다면 자기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걸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어. 이것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고,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올바른 판결로 봐야 해.  
을: 인간의 생명을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야. 아무리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므로 자기 생명은 자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야.

— < 보 기 > —  
ㄱ. 갑: 개인은 자기 생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ㄴ. 갑: 안락사 허용은 결과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임을 주장한다.  
ㄷ. 을: 생명의 종식 여부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한다.  
ㄹ. 을: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도덕적 행위임을 주장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5.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복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기획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② 자연 발생적 출생만이 인간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 ③ 복제 인간은 자연 발생적 인간과 동등한 존재의 자유를 갖는다.
- ④ 개인의 자유보다 복제 인간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다.
- ⑤ 인간 복제로 인해 인간 상호 관계는 지배 종속 관계로 전락할 것이다.

6.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떨어짐, 오온(五蘊)의 부서짐, 생명의 끊어짐을 죽음이라 한다. 태어남이 있을 때에만 죽음이 있다. 삶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와 같으니 그대, 마땅히 그렇게 바라보아야[觀] 한다.

(나) 삶을 죽이고 초월하려는 자에게 죽음은 없고, 삶을 살려고 탐하는 자에게 삶은 없다. 태어나기 전의 근원을 보면 원래 삶도 형태도 기(氣)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가 생겨서 변해 형체가 되고 삶이 되었다가 변하여 죽어 가는 것이다.

- ① (가): 내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생에서 도덕적 수행이 필요하다.

② (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③ (나): 기가 모여서 삶이 되고 기가 흩어져서 죽음이 되는 것이다.

④ (나):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⑤ (가), (나): 죽음은 그 근원을 성찰하고 지극히 애도해야 할 고통이다.

7. 다음 현대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A국에 대한 무장 해제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목표이지만, A국의 대외적 위협은 전쟁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로 제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전한 이상, A국과의 전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정당하다. 첫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민간인 사상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A국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수립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전쟁의 정당성 논의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가?

② 무조건적, 무제한적 전쟁은 도덕적 정당화가 불가능한가?

③ 전쟁의 정당성 논의는 전쟁이 끝남으로써 종식되어야 하는가?

④ 자결주의에 입각한 내정 불간섭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는가?

⑤ 개전 명분과 상관없이 전쟁 중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8.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개인의 타고난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을: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불평등하다는 점, 따라서 생산 능력도 타고난 특권임을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산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배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병: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 ① 갑: 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배제된다.

② 을: 노동분업은 소외된 노동을 해방시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한다.

③ 병: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이다.

④ 갑, 병: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여야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⑤ 을, 병: 사적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승인될 수 없다.

9.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내부 고발은 조직의 도덕적 혹은 법률적 과오를 막으려는 구성원의 행동으로, 과오에 대한 조직의 자체적 개선이 좌절될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내부 고발은 조직에 끼치는 당장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
| (나) | 내부 고발은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조직의 운영과 결속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한 다면 조직의 문제는 반드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 보 기 >—————

ㄱ.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ㄴ. 내부 고발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함을 간과하고 있다.

ㄷ. 내부 고발만이 조직의 비리를 해결하는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ㄹ.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단기적 피해를 감안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인간은 말과 기호를 사용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데 반해, 동물은 움직이는 자동 기계에 불과하다.</p> <p>을: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 일련의 특징을 지니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p> <p>병: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p> |
| (나) | <div> <div> </div> <div> <div>&lt;범례&gt;</div> <div>A: 갑만의 입장</div> <div>B: 을만의 입장</div> <div>C: 병만의 입장</div> <div>D: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div> </div> </div>                                                                                |

—————< 보 기 >—————

ㄱ. A: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일 뿐이다.

ㄴ. B: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ㄷ. C: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ㄹ. D: 자연 안의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그림의 강연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은 자유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시장 실패를 통해 그 부당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대표적 사례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의 핵심은 환경오염의 처리 비용을 당사자인 기업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미래 세대 같은 제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입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의 책임은 해당 기업이 져야 합니다. 설령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기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 ① 기업은 외부효과 방지를 위해 이윤 극대화 활동에 전념해야 하는가?
- ② 기업은 깨끗한 공기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책무를 인정해야 하는가?
- ③ 기업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 ④ 기업은 공공선을 위해 이윤 추구에 대한 제약을 승인해야 하는가?
- ⑤ 기업은 시장 실패가 지역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12.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기본적 권리는 문화라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간 문화적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 관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소수집단의 성원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 경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여 집단 간 문화의 장벽을 영속화시킬 뿐 아니라, 소수집단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여 개인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집단 간 문화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문화보다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다문화주의가 법 적용의 일반성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차별화된 권리의 인정이 보편적 인권과 어긋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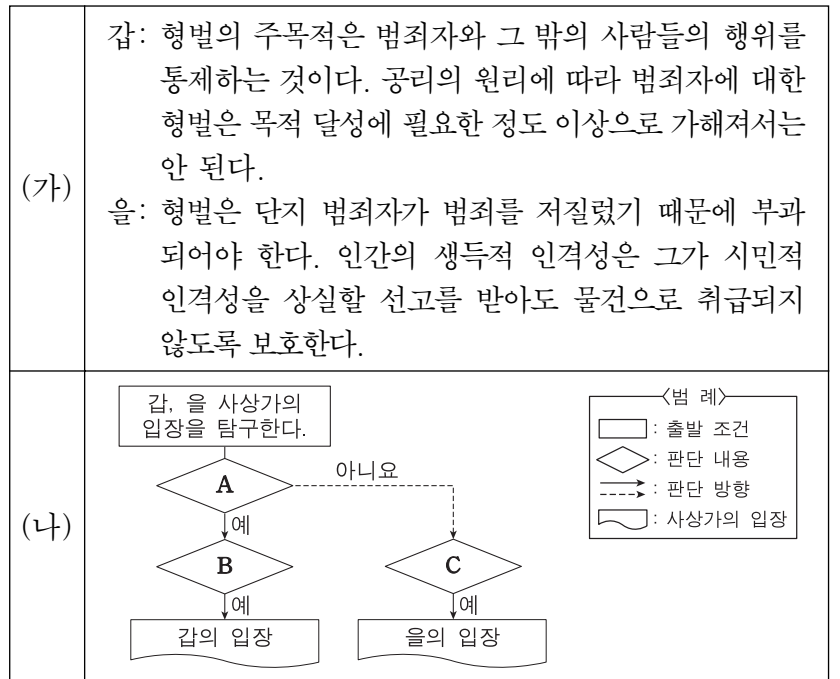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만민들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서 일단 원조의 의무가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을: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넘쳐 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 ① 갑: 모든 국가의 복지 및 부의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 ② 갑: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③ 을: 사회 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 ④ 을: 원조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빈곤자들에 대한 관심의 실천이다.
- ⑤ 갑, 을: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

14.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A: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하는가?
- ㄴ. B: 형벌은 일반인에게 본보기로, 범죄자에게 교화로 작용하는가?
- ㄷ. C: 형벌의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가?
- ㄹ. C: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과거보다 교묘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중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대중 예술에 투사된 세계는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는 기만적 대리 만족이다. 문화 산업은 대중을 통제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한다. 개인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경제적·사회적 장치의 산물이다. 문화 산업이 독점한 대중 예술은 개인의 특성을 획일화하여 자신의 논리를 관철한다.

<보기>

- ㄱ. 대중 예술품의 주된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 ㄴ. 대중 예술의 영역과 권력의 영역은 상호 무관하게 작동한다.
- ㄷ. 대중 예술은 현실적 모순을 은폐하고 대중 의식을 조작한다.
- ㄹ. 대중 예술의 감상은 획일화되지 않은 개인의 고유한 체험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상황 (나)의 갑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사회에 더 큰 선을 산출하는 규칙들의 집합에 속하는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일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 행위는 옳다.                               |
| (나) | 갑은 귀금속 상인이고 을은 반지를 구입하고자 온 손님이다. 갑에게 선택 가능한 행위는 진실을 말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자. 을에게 거짓말을 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음을 알기에 갑은 고민 중이다. |

- ① 자신의 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세요.
- ②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따라 항상 진실만을 말하세요.
- ③ 가능한 다른 행위만큼의 선을 산출하도록 말하세요.
- ④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자연법에 따라 말하세요.
- ⑤ 공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규칙에 따라 말하세요.

17.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비종교적 인간은 성현(聖顯)의 시대에서 세속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성스러움으로 상징화된 초월적 존재의 창조물이다. 성화(聖化)된 자연 안에서 인간은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을: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관찰 가능한 자연의 배후에 숨어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다. 자연은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인간의 윤리적 행위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갑은 종교가 인간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 ② 갑은 비종교적 인간이 자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초월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아도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과학이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초월적 신이 자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본다.

18. (가), (나)에 나타난 삶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드시지 않았고 간장이 없으면 드시지 않았다. 고기가 많아도 곡기(穀氣)를 이기지는 않았으며 주량이 대단했으나 어지러운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다.

(나) 술과 고기를 먹지 마라.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거의 오신채(五辛菜)를 먹지 마라. 식사는 오전 중 한 번으로 끝내라. 발우의 음식은 수많은 연기(緣起)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 ① (가):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 인간다운 품위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② (가):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은 생존 유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 ③ (나): 음식을 통해 세상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해야 한다.
- ④ (나):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수행과 연계시켜야 한다.
- ⑤ (가), (나):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적절히 조절하고 절제해야 한다.

19. 다음 글의 갑~정 중 적어도 세 명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 자체에만 한정된 책임이며, 외적 책임은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명의 입장이 가능하다.

|   | 내적 책임 | 외적 책임 |
|---|-------|-------|
| 갑 | 있음    | 있음    |
| 을 | 있음    | 없음    |
| 병 | 없음    | 있음    |
| 정 | 없음    | 없음    |

— < 보 기 > —

- ㄱ. 과학자는 자료를 위조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 ㄴ. 과학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 자유롭게 연구해야 하는가?
- ㄷ. 과학자는 연구 자체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작용도 책임져야 하는가?
- ㄹ. 과학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과정에서 표절을 해서는 안 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갑: 아닙니다.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을: 제도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악성 댓글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 ①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가?
-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는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 ③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책임감과 실천이 필요한가?
- ④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가?
- ⑤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의 도덕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